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도덕 명제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규범적 도덕 원리는 윤리학의 탐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가):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여러 도덕 관습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다.
- ③ (나):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적 언어의 용례에 대한 분석이다.
- ④ (나): 도덕 원리를 정립할 때 논리적 타당성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①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시민 불복종은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 ② 종교 단체를 억압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부정의한 법률의 존재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이다.
- ④ 다수가 공유하는 종교적 신념도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 ① 갑: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의 일차적 덕목은 모두 정의이다.
- ②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도 배타적 권리를 지닐 수 없다.
- ③ 을: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 ④ 을: 소유 권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의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

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은 국가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물질적 필요의 충족만은 아니며, 국가는 인간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병: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나)

<보 기>

ㄱ. A: 국가는 가족보다 먼저 발생하는 최초의 완전한 공동체인가?
 ㄴ. B: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 상태인가?
 ㄷ. C: 재산권은 사회 계약 이전에도 존재하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인가?
 ㄹ. D: 국가는 각 개인을 구속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녀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입니다. 공화국으로 전환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갑 을

- ① 갑: 평화 조약을 통해서도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중단될 수 없다.
- ② 갑: 영구 평화는 개별 국가와 평화 연맹의 주권을 보장해야 실현될 수 있다.
- ③ 을: 직접적 평화는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 ④ 을: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갑, 을: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전쟁은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만만 사회의 완전한 성인이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원조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을: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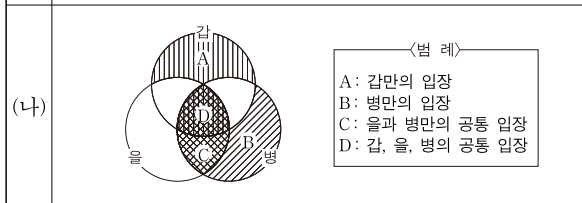
—<보기>—

ㄱ. 갑: 빈곤 문제가 해결된 국가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ㄴ. 을: 원조 행위는 필연적으로 원조 주체의 행복을 감소시킨다.
 ㄷ. 을: 빈민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살인과 도덕적으로 유사하다.
 ㄹ. 갑, 을: 원조 대상을 선정하는 일정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을: 우리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중 차별주의적 태도이다.
 병: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교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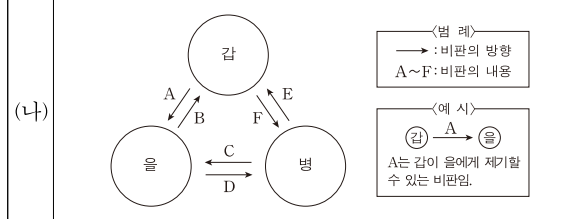
—<보기>—

ㄱ. A: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ㄷ. C: 인간은 이성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ㄹ. D: 모든 생명체가 예외 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 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형벌이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병: 시민의 생명 보존은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한다.



- ① A, F: 사형은 살인범을 시민의 적으로서 처형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살인범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간과한다.
 ③ C: 시민의 비행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 중 하나임을 간과한다.
 ④ D: 국가는 살인범에 대해 어떠한 형벌권도 가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E: 국가의 사형 권한은 수형자의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다. 어느 경우이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체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 ① 세속의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
 ② 종교적 인간은 자연을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로 간주한다.
 ③ 비종교적 인간은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한다.
 ⑤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은 종교적 인간에게 사물로서 숭배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